

대학교 교직원 및 그가족의 의료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강 지 용

—Abstract—

A Study on the Health Care of Ewha Womans University Staff, Faculty and Families

Ji Yong Kang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A study on the health care of Ewha Womans University staff, faculty and families was conducted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1973 to August 1974 using designed questionnaire.

A total of 196 persons who were randomly sampled as 27.3% of the total staff and faculty 789 were studied.

The response rates were 96.0%.

The results and findings obtained from the study are summerized as follow.

1. The sex ratio of the members the faculty and the staff shows 83.2% and the singles are 37.2% of the total. Their mean family size being 4.6 persons per capita, each family has mean number of 2.3 children.

2. The median monthly income of a member of faculty amounts ₩114,000 and that of a staff ₩43,077. It amounts ₩79,333 when the median monthly income of both the members of the faculty and the staff are taken. Consequently, it amounts ₩91,727 per family (Assumed mean).

3. 71.4% of the total hold the house of their own. A spouses of 59.4% of them are working for the additional income of the family.

4. Their health condition is rated fair, i.e. 92.3% of them enjoy good health. Out of total members faculty and the staff, 20.6% are cared by family physician. 36.2% of them feel that they are burdened by heavy medical expense.

5. 76.7% of them have affirmatively responded that they would purchase medical insurance policy when they were offered. It reaches 84.0% of the total who consider buying the policy for their dependents. 74.0% of them desire to purchase the policy for their spouse's parents.

6. The monthly prevalence rate reaches 17.0% and the hospital admission rate 4.7%. 12.3% of them affirmatively responded that they had chronic diseases. The number of sick call per capita counts 0.2

per month and the hospital admission rate 0.05.

7. To examine the nature of their disease, the respiratory disease is rated to be the top and the gastro-intestinal disease comes to the next.

As far as chronic disease is concerned, the gastro-intestinal disease is predominant.

8. As to their treatment, 65.4% of them get the physician's treatment and 17.0% treatment of drug purchasing and 7.7% prefer Chinesedrug. 6.6% of them gets no medical treatment at all.

9. The treatment ratio, including drug purchasing and other means, reaches 93.4%. 60.7% of them affirmatively responded that they did not or could not get physician's treatment at least once even though they thought they had to. It is disclosed that 29.4% of them are caused by economical reason.

10. Average medical expense per case amounts ₩7,116 and monthly medical expense per capita ₩1,345. Consequently, average monthly medical expense per family amounts ₩6,185.

11. The medical expense of a family is rated 7.7% of total earnings of the same period.

I. 서 론

어떻한 국가나 사회가 발전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인구의 건강이 유지 되지 않고서는 발전이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다. 이것은 건강이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사실이 점차 강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최근에 와서는 의기술과 방법이극도로 전문및세분화하여 의료요구량과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는등의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지사회추구의 시대적 요청을 충족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여러형태의 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1965년 이후 지금까지 몇개의 산업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범국민적인 의료보험의 실시로 보다 나은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실정이다. 금번 이화여자대학에서는 교직원의 건강증진과 의료보장을 제도화하여 건강을 유지및 증진하므로 참다운 삶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마련하고자 참고자료를 수집 의료문제에 관한 연구를 한바 그결과를 이에 제시하고자 한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과 표본추출

조사대상은 교직원 및 교직원 직계(배우자 부모포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973년 4월 1일 전교 교직원수는 746명으로 이들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연구원, 사무직 및 고용인등 성별, 층별 비례추출법을 사용하여 크기 204명을 표본추출하여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총 204명중 196명이 응답하여 응답율이 96.0% 차

하였다. 또 196명의 교직원 및 가족수는 900명으로 이들에 대해서 이환 및 치료상태를 조사하였고 교직원 196명에 대해서는 아울러 의료보험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2) 조사방법

건강상태 조사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을며 그내용은 ①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 ②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태도 ③ 이환 및 치료상태등으로 크게 셋으로 구분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월간 유병율은 1973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사하였고 입원은 3월 이전부터 거슬러 1년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표본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 조사표를 배부하여 약 2주일 간에 정확한 회담을 기록 회수 하였고 기록이 부정확시에는 재문의 하여 자료를 정비하였다. 자료처리 방법은 코딩하여 IBM 처리 및 제표하여 분석하였다.

III. 조사성적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성별 연령별 가족상황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응답교직원) 196명중 남자가 36.8% 여자가 63.2%였고 남자에서는 40~44에서 20.8%로 가장 많고 여자에서는 20~24세에서 27.4%로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배우자 상황은 남자의 경우 15.2%에 있어 무배우자 상태이고 여자인 경우 50.0%에 있어 무배우자 상태에 있었다. 부모인경우 부친이 41.8% 모친이 56.5% 생존하고 있었으며 배우자 부모인 경우 부친이 31.6% 모친이 43.2% 생존하고 있었다.

자녀에 있어서는 남아가 154명 여아가 142명으로 '미

표 1.

성별 연령별 가족상황(피보험 예상자)

가 족 연 령	교 직 응 답		원 자 응 답자 배 우 자		응답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응답자의 자녀		총 계		
	남	여	남	여	부 모	부 모	남	여	남	여			
0-4									30 (19.5)	31 (21.8)	30 (7.4)	31 (6.3)	61 (6.8)
5-9									38 (24.7)	35 (24.6)	38 (9.3)	35 (7.1)	73 (8.1)
10-14									33 (21.5)	30 (21.2)	33 (8.1)	30 (6.1)	63 (7.0)
15-19	1 (1.4)								29 (18.8)	27 (19.0)	30 (7.3)	27 (5.5)	57 (6.3)
20-24	2 (2.8)	34 (27.4)							11 (7.1)	16 (11.3)	13 (3.2)	50 (10.2)	63 (7.0)
25-29			28 (22.6)	6 (9.7)	8 (13.1)				13 (8.4)	3 (2.1)	19 (4.6)	39 (7.9)	58 (6.5)
30-34	11 (15.3)	16 (12.9)	12 (19.4)	8 (13.1)							23 (5.6)	24 (4.9)	47 (5.2)
35-39	12 (16.6)	16 (12.9)	15 (24.2)	13 (21.3)							27 (6.6)	29 (5.9)	56 (6.2)
40-44	15 (20.8)	11 (8.9)	15 (24.2)	13 (21.3)		1 (0.9)					30 (7.4)	25 (5.1)	55 (6.1)
45-49	11 (15.3)	13 (10.5)	6 (9.7)	12 (19.7)	6 (7.3)	19 (17.1)		3 (5.7)			23 (5.6)	47 (9.7)	70 (7.8)
50-54	11 (15.3)	3 (2.4)	3 (4.8)	3 (4.9)	18 (22.0)	28 (25.2)	4 (10.3)	5 (9.4)			36 (8.8)	39 (7.9)	75 (8.3)
55-59	7 (9.7)	2 (1.6)	3 (4.8)	4 (6.6)	22 (26.8)	16 (14.4)	5 (12.8)	13 (24.5)			37 (9.0)	35 (7.1)	72 (8.0)
60-64	2 (2.8)	1 (0.8)	2 (3.2)		8 (9.8)	14 (12.6)	10 (25.6)	16 (30.2)			22 (5.4)	31 (6.3)	53 (5.9)
65-69					11 (13.4)	14 (12.6)	9 (23.1)	8 (15.1)			20 (4.9)	22 (4.5)	42 (4.7)
70+					17 (20.7)	19 (17.2)	11 (23.2)	8 (15.1)			28 (6.8)	27 (5.5)	55 (6.1)
계	72 (8.0)	124 (13.8)	62 (6.9)	61 (6.8)	82 (9.1)	111 (12.3)	39 (4.3)	53 (5.9)	154 (17.1)	142 (15.8)	409 (45.4)	491 (54.6)	900 (100.0)

혼자를 뺀 296명에 대해 1인당 평균자녀수는 2.3명을 나타내고 있다. 1가구당 평균 가족수는 4.6명이었다. 연령별로 관찰하면 50~54세군에서 8.3%로 가장 많고 5~9세에서 8.1% 55~59세에서 8.0%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보험 피보험자를 예상한 인구형태는 원주형을 이루고 있어 각연령층의 인구가 거의 비슷한 차를 나타내고 있다. 가족구성을 비교하면 남자에 있어서 7.1%로 가장 인구수가 높고 다음이 여아 15.9% 응답자의 모친이 12.3% 부친이 9.1%의 순위로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 거주형태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가가 교원에 있어 74.7%를

차지하고 사무직이 68.8%로 교원이 더 높고 전세가 각각 19.7%, 24.8%로 교원직이 좀더 경제 수준이 높다고 볼수 있다. 교원사무직이 통합하여 자가가 71.4%, 전세 22.4%, 월세 0.5%, 기타 5.6%로 자가사용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자기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22.4%나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다. 교직원 월수입

교직원 월평균수입은 2만원 미만에서 2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10~12만오천원이 28.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사무직에서 2만원미만에서 20.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교원 사무직 통합하여 10만원~20만원 이상이 41.3%로 가장 많고 2만원~5만원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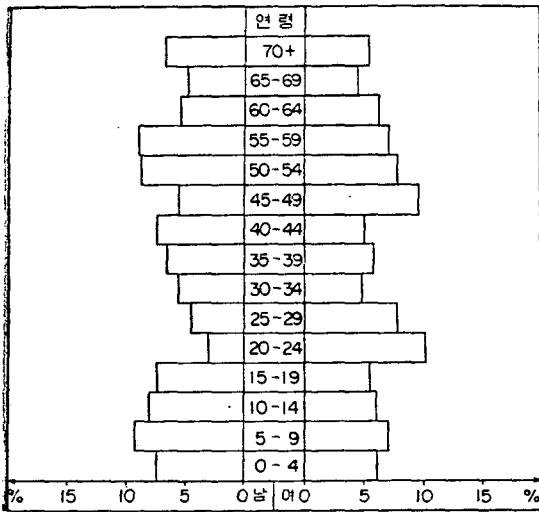


그림 1. 성별, 연령별 인구모형도(피보림자 예상)

표 2. 거주 형태

거주형태	교원	사무직	계
자 기 집	65(74.7)	75(68.8)	140(71.4)
전 세	17(19.7)	27(24.8)	44(22.4)
월 세	1 (1.1)	—	1 (0.5)
기 타	4 (4.6)	7 (6.4)	11 (5.6)
계	87(100.0)	109(100.0)	196(100.0)

32.6% 5만원~10만원까지 25.0%의 순위를 차지하고있다. 교원의 월수입 중앙값은 114,000원이고 사무직은 43,077원 교원 사무직을 합한 중앙값은 793,333원이다.

라. 배우자의 직업관계

여자직원의 배우자 직업은 무직상태가 1.6%로 거의 취업상태이고 남자직원의 배우자는 80.3%에서 무직상태로 나타내고 있다.

배우자 남성의 직업은 사무직이 33.9%로 가장 많고 배우자 여성은 전문직기술직이 14.6%로 가장 많다.

배우자 남녀통합하여 40.6%가 무직이고 59.4%에 있어서 부부공동으로 취업하여 경제생활을 돕고 있음을 알수 있다.

2) 조사대상자의 의료에 관한 태도

㉞ 건강상태와 단골의사 유무

건강상태와 단골의사 유무를 관찰하면 교원직에서는 단골의사가 있다가 36.7%이고 사무직에서는 17.5%로

표 3. 교직원 월평균 총수입

월평균 총수입(₩)	교원	사무직	계
<20,000	22(20.2)	22(11.2)	
20,000~29,000	9 (8.3)	9 (4.6)	
30,000~39,000	1 (1.1)	19(17.4)	20(10.2)
40,000~49,000		13(11.9)	13 (6.6)
50,000~59,000	3 (3.4)	10 (9.2)	13 (6.6)
60,000~69,000	5 (5.7)	1 (0.9)	6 (3.1)
70,000~79,000	11 (12.6)	4 (3.7)	15 (7.6)
80,000~89,000	5 (5.7)	5 (4.6)	10 (5.1)
90,000~99,000	4 (4.6)	1 (0.9)	5 (2.6)
100,000~124,000	25 (28.7)	14(12.8)	39(19.9)
125,000~149,000	3 (3.4)	2 (1.8)	5 (2.6)
150,000~199,000	15 (17.2)	5 (4.6)	20(10.2)
>200,000	14 (16.1)	3 (2.7)	17 (8.7)
무응답	1 (1.1)	1 (0.9)	2 (1.0)
계	87(100.0)	109(100.0)	196(100.0)

표 4. 배우자의 직업상황

배우자 직업	배우자의 성별		계
	남	여	
직업 無	1 (1.6)	49(80.3)	50(40.6)
전문직, 기술직	22(19.4)	9(14.6)	31(25.2)
관리, 행정직	3 (4.8)	—	3 (2.4)
사무직	21(33.9)	1 (1.7)	21(17.1)
판매직	8(12.9)	—	9 (7.3)
농, 수산, 임업	1 (1.6)	1 (1.7)	1 (0.8)
서비스	—	—	1 (0.8)
기능직	—	—	—
군인	4 (6.5)	—	4 (3.3)
무응답	2 (3.2)	1 (1.7)	3 (2.4)
계	62(100.0)	61(100.0)	123(100.0)

교원직이 높은 율을 나타내고 있다 건강상태는 교원직에서는 52.9% 사무직에서는 39.4%에서 건강이 좋은편이라고 나타나고 있다. 전체 대상자중 좋은편이 45.4% 보통이 46.9%로 대부분이 보통 이상이다.

㉟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교원에서 큰 부담이된다가 37.9% 사무직은 34.9%로 거의 비슷한 치를 나타내고

표 5.

건강상태와 단골의사 유무

의사유무 건강상태	단골의사가 있다			단골의사가 없다			계			
	교 직		사무직	교 직		사무직	교직		사무직	계
	교	직	계	교	직	계	교	직	계	
좋은 편이다.	15 (46.9)	8 (42.1)	23 (45.1)	31 (56.4)	35 (38.9)	66 (45.5)	46 (52.9)	43 (39.4)	89 (45.4)	
보통이다.	13 (40.6)	9 (47.4)	22 (43.1)	17 (30.9)	53 (58.9)	70 (48.3)	30 (34.5)	62 (56.9)	92 (46.9)	
좋지 못한 편이다.	4 (12.5)	2 (10.5)	6 (11.7)	7 (12.7)	2 (2.2)	9 (6.2)	11 (12.6)	4 (3.7)	15 (7.7)	
계	32 (100.0)	19 (100.0)	51 (100.0)	55 (100.0)	90 (100.0)	145 (100.0)	87 (100.0)	109 (100.0)	196 (100.0)	

표 6.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감

부 담 여 부	교 원		사 무 직		계	
큰 부담이 된다.	33(37.9)		38(34.9)		71(36.2)	
지출할 만하다.	23(32.2)		27(24.8)		55(28.1)	
비중이 적은 편이다.	26(29.9)		42(38.5)		68(34.7)	
무 응 답	—		2(1.8)		2(1.0)	
계	87(100.0)		109(100.0)		196(100.0)	

표 7.

발병시 의사의 치료상황

① 의사의 치료여부(의사의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직 원 치료여부	교 원		사 무 직		계	
	교	원	사	무 직	계	원
받지 않을 때도 있음	54	62.1	65	59.6	119	60.7
받았음	33	37.9	44	40.4	77	39.3
계	87	100.0	109	100.0	196	100.0

②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직 원 이 유	교 원		사 무 직		계	
	교	원	사	무 직	계	원
경제적 어려움	15	27.8	20	30.8	35	29.4
참고 견딜만해서	23	42.6	30	46.1	53	44.5
귀찮아서	13	24.1	11	16.9	24	20.2
기 타	3	5.5	4	6.2	7	5.9
계	54		65		119	

있다. 전체 대상자에서는 지출할만하다가 28.1% 비중이 적은 편이다가 34.7%를 나타내고 있어 약 1/3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볼수 있다.

㊤ 발병시 의사의 치료상황

발병하였을 때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느끼면

표 8. 의료보험 가입과 가족가입에 대한 의견

① 조사대상자의 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의견

가 입 여 부	교 원		사 무 직		계	
가입 하겠다	63	72.4	68	62.4	131	66.8
안 하겠다	24	27.6	41	37.6	65	33.2
계	87	100.0	109	100.0	196	100.0

② 가족 가입에 대한 의견

	가 족 포 합			배우자의 부모포함								
	교 원	사 무 직	계	교 원	사 무 직	계						
찬성한다	58	92.1	52	76.4	110	84.0	50	79.4	47	69.1	97	74.0
불찬성한다	5	7.9	13	19.1	18	13.7	9	14.3	13	19.1	22	16.8
무 응 답			3	4.5	3	2.3	4	6.3	8	11.8	12	9.2
계	63	100.0	68	100.0	131	100.0	63	100.0	68	100.0	131	100.0

표 9.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이 유	교 원		사 무 직		계	
건강하기 때문	4	16.7	11	26.8	15	23.1
의료보험을 원하지 않기 때문	7	29.2	12	29.3	19	29.2
기 타	11	45.8	18	43.9	29	44.6
무 응 답	2	8.3			2	3.1
계	24	100.0	41	100.0	65	100.0

서도 받지 않을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 교원직에서 62.1% 사무직에서 59.1% 차지하고 있으며 그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교원에서 27.8% 사무직이 30.8%로 거의 비슷한치를 나타내어 약 1/3이 치료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㉔ 의료보험 가입과 가족가입에 대한 의견

의료보험가입을 찬성할 경우는 교원직이 72.4% 사무직이 62.4%로 교원직이 약간 높았고 평균 66.8%에 있어서 의료보험제도를 수립 가입을 찬성하였다. 가족가입에 대한 의견은 교원직이 92.1% 찬성 사무직이 76.4% 찬성하고 평균 84.0% 찬성하여 대부분이 가족가입을 원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의 부모 가입에 대한 의견은 교원직이 79.4% 사무직이 69.1%를 차지하고 통합하여 74.0%에

서 가입을 찬성하였다.

㉕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의료보험가입에 불찬성 이유는 교원직에서 건강하기 때문이 16.7%이고 사무직이 26.8%이며 의료보험을 원하지 않나 때문은 각각 29.2%, 29.3% 기타가 45.8%, 43.9%로서 뚜렷한 이유를 내세우지 않는 항목 기타가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㉖ 발병정도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에 관한 의견(미래에 있어서)

이것은 의료보험제도가 없을시에 미래에 있어서 의료기관 이용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본인의 경우 경중에서는 교내 대학보건소를 이용한다는 사람이 46.4%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이대병원이 14.8%이며 중중에서는

표 10.

발병정도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에 관한 의견(미래예)

병 원 종 류	본인의 경우		가 족의 경우	
	경 증	중 증	경 증	중 증
교내 보건소	91 (46.4)	2 (1.0)	8 (4.1)	1 (0.5)
이대 부속병원	29 (14.8)	86 (43.9)	51 (26.0)	69 (35.2)
타대학 부속병원	6 (3.1)	25 (12.7)	12 (6.1)	27 (13.8)
종합병원	19 (9.7)	68 (34.7)	33 (16.8)	77 (39.3)
개인의 병원	16 (8.2)	10 (5.1)	29 (14.8)	11 (5.6)
한의원	1 (0.5)		3 (1.5)	1 (0.5)
약국(매약)	29 (14.8)		42 (21.4)	
무 응 답	5 (2.6)	5 (2.6)	18 (9.2)	10 (5.1)
계	196 (100.0)	196 (100.0)	196(100.0)	196(100.0)

표 11.

연령별 발병자 및 발병건수

연 령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	계
인 구 수	134	120	121	103	125	147	150	900
발병자수	29(21.6)	7(5.8)	28(23.1)	31(30.9)	24(19.2)	23(15.6)	11(7.3)	153(100.0)
건 수	32	7	36	42	27	26	12	182

표 12.

발 병 자 의 치 료 상 황

	인원수	총발병자	건수	통원건수	입원건수	매약건수	한약건수	기타건수	미신	불치료
표 본 수	900	153 (17%)	182 (100.0)	112 (61.6%)	7 (3.8%)	31 (17%)	14 (7.7%)	6 (3.3%)	0 (0%)	12 (6.6%)
총 피보험자에 대한 예상수	3629	617	734	452	28	125	57	24	0	48

이대병원이 34.7% 타대학병원이 12.7%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인 경우는 경증에서 이대병원이 26.0%로 가장 높고 중증에서는 종합병원이 39.3%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이대병원이 35.2%를 나타내고 있다.

3) 조사대상자의 이환상태 및 치료상황

㉑ 연령별 발병자 및 발병건수

연령별 인구수의 이환상태를 비교하면 30~39세에서 30.9%로 가장 많고 다음이 20~29세에서 23.1% 0~9세에서 21.6%의 순위로 발생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표11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사대상자 900명중 발병환자 월간 153명으로 17.0% 이환율을 나타내었고 153명중 발병건수 182건으로 발병환자 1인당 1.2건이며 총인구 1인당 발병건수 0.2를 나타내고 있다.

㉒ 발병자의 치료상황

월간 발병자 치료상황을 보면 총 182건중 통원과 입원을 합한 병원치료가 65.4%로 가장 많고 병원치료가 119명중 94.1%가 통원치료를 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다.

매약건수는 17.0%로 2위를 차지하고 다음이 한약건수 7.7% 불치료가 6.6%이며 미신치료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㉓ 발병건당 치료장소

발병하였을 때 이용한 치료장소는 대학보건소가 24.7%로 가장 많고 개인의원이 22.0% 이대병원이 7.7% 타대학병원이 7.2% 한의원이 7.7%를 차지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표 13.

발 병 건 당 치 료 장 소

장소	대학보건소	이대병원	타대병원	종합병원	개인의원	한의원	두곳이상	기타장소	불치료	총 계
건 수	45	14	13	7	40	14	6	31	12	182
%	24.7	7.7	7.2	3.8	22.0	7.7	3.3	17.0	6.6	100.0

표 14.

연 간 입 원 환 자 상 황

입원환자수	입원건수	입원환자 1인 당 환자건수	총인구 1인당 입원건수	수술치료	비수술치료	입원건당 평균입원일수
42	43	1.02	0.05	11	32	9.1일
4.7%	—	—	—	25.6%	74.4%	—

표 15.

상 병 자 의 질 병 분 류

질 병 분 류	3월질환	년간입원질환	만성질환
1. 전염병 및 기생충병	1	—	2
2. 신생물	1	—	—
3. Allergy 성 질병, 내분비계의 질병, 물질대사 및 영양의 질병	—	2	12
4. 혈액 및 조혈기의 질병	5	—	2
5. 정신병, 정신 신경증 및 인격이상	—	—	—
6. 신경계 및 감각기의 질병	12	2	14
7. 순환계의 질병	8	5	18
8. 호흡기계의 질병	72	11	6
9. 소화기계의 질병	43	8	35
10. 비뇨기계의 질병	4	3	1
11. 분만 및 임신 분만 및 산육의 합병증	—	1	—
12. 피부 및 속성 결합조직의 질병	7	2	3
13. 골 및 운동기의 질병	6	2	5
14. 선천기형	—	—	—
15. 신생아의 제질병	—	—	—
16. 증상, 노쇠 및 진단명 부적당의 상태	21	1	12
17. 불의의 사고 중독 및 폭력	2	2	—
미 상	—	4	1
계	182	43	111

㉔ 연간 입원환자 상황

입원환자는 연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2명이 연간입원하여 4.7%를 나타내고 있다. 입원건수는 43건으로 입원환자 1인당 1.02건 입원하였으며 총인구 1인당 입원건수 0.05를 관찰할수 있다. 입원환자중 수술 비수술치료의 비는 수술입원이 25.6%를 차지하고 입원건당평균 입원일수는 9.1일임을 나타내고 있다.

㉕ 상병자의 질병분류

상병자의 질병을 분류하면 3월달에 이환된 질병중 호흡기계의 질병이 7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소화기계가 43명 증상 노쇠 및 진단명 부적당의 상태가 21명으로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입원 질환에서도 역시 호흡기계 질병소화기계 질병이 많다.

만성질환의 유무 조사대상자 900명중 111명(12.3%)

표 16.

치료건당 및 월간인구 1인당 1가구당 평균치료비(비:원)

치 료 종 류	치료자수	총치료비	치료건당 평균치료비	인구 1인당 평균치료비	1가구당 평균치료비
통 원 비	112	487,424	4,352	544	2,502
입 원 비	7	483,714	69,102	537	2,470
매 약 비	31	39,091	1,261	43	197
한 약 비	14	142,450	10,175	159	731
기 타 치 료 비	6	57,120	9,520	62	285
불 치 료	12	0	0	0	0
총 치 료 비	182	1,209,799	7,116	1,345	6,185

표 17.

지역별 의료상황과 의료비 지출 비교

지 역	이 화	연 세	옥 구 군	전 국
의 료 상 황				
1. 월간 유병율	17.0	26.2	22.1	—
2. 년간 입원율	4.7	5.8	—	—
3. 만성 질환율	12.3	27.6	—	—
4. 치료율	93.4	63.8	—	—
5. 의료비가 부담이 된다	36.2	41.3	—	—
6. 단골의사가 있다	20.6	34.3	—	—
7. 의료보험 가입찬성	66.8	76.7	—	—
8. 치료건당 치료비	7,116(72년)	6,426(71년)	3,356(72년)	2,747(71년)
9. 월간 1인당 치료비	1,345(72년)	1,380(71년)	526(72년)	432(71년)
10. 월간 1가구당 치료비	6,185(72년)	—	3,235(72년)	2,160(71년)

이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소화기계 질병이 3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순환기계 18명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㉔ 치료종류별 치료비에 관한 사항

치료비는 표16과 같이 모든 방법에 있어서의 치료를 구분하여 관찰하였다. 통원, 입원, 매약, 한약, 기타치료로 나누었으며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상병 1건당 평균 통원치료비는 4,352원 입원은 69,102원 매약은 1,261원 한약은 10,175원 기타 치료비는 9,520원이었다.

총치료비는 1,209,799원으로서 치료건수 170으로 나누워 치료건당 평균치료비는 7,116원이었다.

월간 인구 1인당 평균치료비는 1,345원이며 월간 1가구당 평균치료비는 6,185원이었다.

Ⅳ. 고 찰

① 조사대상자의 남녀성비가 83.2%로 여성이 많고 무배우자가 37.2% 배우자 부모를 포함한 평균가족수는

4.6명으로 이는 옥구군의 5.8명보다 적고 자녀수는 평균 2.3명(해외체류자는 제외)을 나타내고 있다.

② 경제상태로는 교직원의 월수입 중앙값은 교원이 114,000원 사무직이 43,077원이다. 연세대학의 교원 89,706원 직원 37,583원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입을 보이고 있다. 가옥 소유자는 71.4%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전세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 취업상태는 59.4%이고 그중 전문직 및 기술직이 25.2%, 다음이 사무직이 17.1%를 차지하고 있어 과반수 이상이 부부와 같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③ 건강상태로는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가 92.3%나 차지하고 단골의사가 있다는 20.6%이었다. 이것은 연세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 관한 연구조사¹⁾의 34.3%에 비해서 적은치를 나타내고 있다.

④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사람은 36.2%이었고 이것은 연세대학의 41.3%보다 적은 치이고

발병시의 의사의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60.7%나 되었고 그이유로는 오직 경

제적 부담으로 인한 것이 29.4% 나머지는 참고 견딜만 해서 또는 귀찮아서 등이 차지하여 조기치료의 효과나 조기건강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⑤ 의료보험에 가입을 찬성하는 사람은 66.8%이며 가족가입에 대한 의견은 84.0% 찬성율을 보이고 배우자부모를 가입하겠다는 사람은 74.0%를 나타내고 있어 배우자 부모에 대한 의료부담을 느끼고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건강하기 때문이 23.1%에 지나지 않으며 보험제도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 29.2%, 기타가 44.6%로 보험제도 자체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복잡한 점과 이해가 부족되고 있음을 알수있다.

⑥ 발병정도에 따라서 미래에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경증인 경우 본인은 대학보건소를 이용 중증인 경우는 본인가족이 있어서 이대부속병원 다음이 종합병원을 들수있어 현재대학보건소 보험진료실을 계속 이용할수 있음을 볼수 있다.

⑦ 발병상태를 조사한 결과 월간 유병율은 17.0%이고 연세대학 26.2%, 옥구군이 22.1%로 본대학이 훨씬 낮은율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혹시 본인이외에 가족에게 조사한 것이었으므로 본인에게 직접조사한 것보다 발병기록이 누락된것이 있거나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연간 입원율은 본교 4.7% 연세대학 5.8%, 만성질환은 본교 12.3% 연세대학 27.6%로 연세대학의 유병율이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⑧ 치료율은 본교 93.4%에 비해 연세대학이 63.8% 차지하고 있다. 치료상황은 환자중 병원치료가 65.4%가 가장 많고(동원: 61.6%, 입원: 3.8%), 매약이 17.0%, 한약이 7.7%의 순이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병원치료가 62.7%로 본대학과 비슷한 수치이고 한의사가 19.2%인 것으로 보아 본대학은 7.7%로 한약을 애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수 있다.

병원이용은 대학보건소 진료실이 24.7%로 가장 많고 다음이 개인의원 22.0%, 이화대학병원 7.7%, 타대병원 7.2%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⑨ 이환된 질병의 종류를 분류하면 호흡기질환이 가장 많고 다음이 소화기계통이다. 만성병에 있어서는 소화기계통이 가장 많다.

⑩ 의료비 지출은 치료건당 평균 치료비가 7,116원(72년)이며 이며이 것은 총치료액을 치료건수로 나눈것으로 연세대학은 6,426원(71년)으로 약간 치료비가 많으나 년도에도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고 옥구군은 3,356원이며 전국은 2,747원으로 치료비가 낮았다.

월간 1인당 치료비는 본교 1,345원(71년) 연세대학(1,380원)(71년) 옥구군 526원(72년), 전국 432원(보건

사회부 지역별지출 의료비규모 1971)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1가구당 치료비는 본교 6,185원(72년), 옥구군이 3,235원(72년), 전국이 2,160⁹⁾(71년)으로 본교조사에 있어서 의료비 지출이 훨씬 많은 것을 알수 있는데 연도차이 혹은 치료비 계산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았던 점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전국조사에서 가구소득의 의료비 지출비율은 전국이 5.0%⁹⁾(대도시)에 비해 본교는 7.7%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V. 결 론

이화여자대학교 교직원 및 가족의 의료보험 수립을 위하여 1973년 3월 교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교직원 789명중 196명을 성별 층별비례로 표본 추출함) 의료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① 교직원 남녀의 성비는 83.2% 그중무배우자가 37.2%이다. 평균가족수는 4.6명이고 평균자녀수는 2.3명이었다.

② 교직원 월수입 증감액은 교원인 경우 114,000원이며 사무직은 43,077원을 나타내고 교직원 통합한 증감액은 79,333원이다. 가평군은 91,727원이다.

③ 가족소유자가 71.4%이고 배우자 취업율이 59.4%이었다.

④ 건강상태가 보통이다. 또는 좋은편이다가 92.3%이고 단골의사가 있다는 사람이 20.6%이었다. 의료비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사람은 36.2%이었다.

⑤ 의료보험제도가 수립되면 가입을 하겠다는 사람이 76.7%이고 가족도 가입을 원한다는 사람은 84.0%이었다. 배우자 부모 가입을 찬성하는 사람은 74.0%이었다.

⑥ 월간 유병율은 17.0%이고 연간 입원율은 4.7%이며 만성질환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12.3%이었다.

월간 1인당 발병건수는 0.2이고 연간 1인당 입원건수는 0.05이다.

⑦ 질병의 종류는 호흡기계통 질환이 가장 많고 다음이 소화기계통질환이 차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은 소화기계통이 가장 많았다.

⑧ 치료상황을 보면 병원치료가 65.4%로 가장 많고 다음이 매약치료가 17.0%이며 한약치료가 7.7% 불치료가 6.6% 차지하고 있었다.

⑨ 발병에 대한 치료율은(약국이용 기타모든 치료포함) 93.4%이었다. 반드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치료(의사의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한번이라도 있었으나에 대해서는 60.7%나 되었고 그중

경제부담으로 인한것이 29.4%이었다.

⑩ 의료비 지출은 치료 1건당 평균치료비는 7,116원이며 월간 1인당 평균치료비는 1,345원 월간 1가구당 평균 치료비는 6185원이었다.

⑪ 1가구당 소득의 의료비 지출비율은 7.7% 이었다.

참 고 문 헌

1. 유승홍, 양재모 : 연세교직원과 학생의 의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1972.
2. 김인달, 허정 : 우리나라 상병과 의료에 관한 사회의학적연구, 서울대학교 논문집, 17h24, 1966.
3. 양재모 : 국민의료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60.
4. 양재모, 홍사석 : 제주도민의 상병 및 의료와 도내의사의 수입에 관한 종합적연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960.
5. 이화여자대학교 : 1972년도 교원명단, 1972.
6. 이화여자대학교 대학보건소 : 1973년도 연차보고서,

1973.

7.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 : 연보, 1971.
8. 양재모, 김명호 : 연세지역에 대한 보건 기초조사. 대한예방의학회지, 1:25, 1968.
9. 보건사회부 : 건강조사보고서, 1972.
10. Shea, L. G. : *Commonwealth Medical benefits. Printed in Australia, January, 1957.*
11. Johnson, K. G., Sibley, J. R., Kim, C. N. and Kim, I. S. : *Koje Island Illness and Health Care Patterns. Yonsei Med. J. 11:160, 1970.*
12.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Community Health planning or who will control the Health Care System America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62, No. 10, October 1972.*
13.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Problems and Prospects for Comprehensive Health Planning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62, No. 1, January 1972.*

